



13일 카타르 도하의 루사일 양궁장에서 열린 양궁 여자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한 박성현, 이특영, 윤미진, 윤옥희(왼쪽부터) 등 한국남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 남자하키 2연패 보인다

### 일본 꺾고 결승 진출



아시안게임 2연속 우승을 노리는 한국 남자하키가 일본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한국은 13일 카타르 도하의 알 라안 하키피드에서 열린 2006 도하아시안게임 남자하키 4강전에서 장종현(22·조선대)의 맹활약으로 일본을 2-0으로 꺾고 결승에 올라 은메달을 확보했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한국은 후반 20분 장종현이 페널티 코너를 득점으로 연결한 데 이어 경기 끝나기 7분 전에는 역시 장종현이 역시 페널티 코너를 성공시켜 2-0 완승을 거뒀다.

포지션이 수비수인 장종현은 이번 대회에서 페널티 코너로만 15골을 넣어 득점 부문 1위를 달리며 한국의 결승 진출에 일등 공신이 됐다.

득점 2위인 아마보리 다카히코(일본)의 10골보다 무려 5골이나 앞서는 수치다.

이날 승리로 이번 대회 상위 2개국에 주어지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게 된 한국은 15일 새벽 1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중국과 금메달을 놓고 다툰다.

한국인 김성열 코치가 팀을 지휘하는 중국은 세계랭킹 19위지만 이번 대회 예선에서 세계랭킹 7위 인도를 3-2로 이긴 데 이어 이날 준결승에서 파키스탄을 2-1로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결승까지 진출했다.

파키스탄은 세계 랭킹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5위에 올라있는 강호다. 세계랭킹 6위인 한국은 예선에서 중국을 3-0으로 완파했다.

조성준 대표팀 감독은 "중국이 잘했다기보다 인도, 파키스탄이 방심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준결승은 선배가 이끄는 중국이 결승까지 와 기쁘지만 인도, 파키스탄보다 덜 까다로운 상대"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장하다! 태극女 공사들

## 단체전 대회 3연속 우승 양궁여왕 박성현 2관왕



한국 여자양궁이 2006 도하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은 13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루사일 양궁장에서 열린 양궁 여자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215-208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은 윤미진(23전북도청), 윤옥희(21·예천군청), 박성현(23·전북도청)이 첫 엔드에서 모두 9점을 쏘아 54점을 기록했고 장취안취안(25), 자오링(25), 천자링(18)

이 나선 중국은 53점으로 1엔드를 마쳤다. 2엔드에서도 한국은 윤옥희가 2발을 모두 10점에 명중시키는 활약에 힘입어 109-102까지 앞서나가 승리를 예감케 했다. 한국은 3라운드에서 박성현이 6점을 한 번 쏘아 위기를 맞은 듯 했으나 4점차 리드를 지킨 채 마지막 엔드에 돌입했다. 그러나 중국이 4엔드 첫 3발을 9-7-7점을 쏘는 부진으로 스스로 무너져 한국은 마지막 3발을 남기고 7점을

앞서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예선을 1위로 마쳤던 한국은 이날 앞서 열린 4강전에서 '소녀공사' 이특영(17·광주체고)과 박성현(23), 윤미진(23)이 출전, 대만을 207-196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이로써 한국은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 이후 3개 대회 연속 단체전 우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땀 박성현은 2관왕에 올라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가운데 9번째 다관왕이 됐다.

한국은 또 이번 대회까지 8번의 아시안게임 여자 단체전에서 6번을 우승하는 초강세를 이어갔다. 1회전에서 카타르를 210-136으로 완파한 한국은 2회전에서 카자흐스탄을 213-194로 이겼고 준결승에서는 대만을 211-196으로 꺾고 결승까지 올랐었다. 한편 3~4위전에서는 김영옥(25), 권은실(23), 손혜영(26)이 나선 북한이 대만에 206-208로 져 4위에 그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요트 김대영-정성안조 대회 3연패

## 육상 박재명 창던지기 '금'...조선대 김덕현 세단뛰기 '동'

### 한국, 막판 2위 굳히기 돌입

한국 요트가 아시안게임 3연속 우승을 일궈내고 '효자종목' 양궁에서도 금빛 과녁을 명중시켰으며 육상에서도 기다리던 첫 금메달이 나와 종합 2위의 희망을 이어갔다. 그러나 온 국민이 관심을 모았던 축구와 농구는 각각 4강과 8강에서 탈락해 실망감을 안겼다. 13일 오후 카타르 도하의 도하 세일링클럽에서 열린 2006 도하아시안게임 요트 남자 470급 최첨레이스에서 김대영(31)-정성안(35·이상 평택시청) 조가 1위를 차지해 별점 20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투척의 희망' 박재명(25·대백시청)은 이날 새벽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육상 남자 창던지기에서 79m30을 던져 무라카미 유키후미(일본·78m15), 리룡상(중국·76m13)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10월 전국체전에서 '마의 벽' 17m를 뛰어넘어 한껏 기대를 부풀렸던 세단뛰기의 김덕현(조선대)은 16m87을 기록해 리양시(중국·17m06), 로만 발리예프(카자흐스탄·16m98)에 이어 동메달을 따내는데 그쳤다. '효자종목' 양궁에서도 금메달 행진을 계속하며 한국선수단에 힘을 실었다. 남자 양궁의 임동현(20·한국체대)은 루사일 양궁장에서 열린 개인전 결승에서 일본의 와키노 도모카즈를 108-100으

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여자양궁도 이날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215-208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보냈다. 펜싱 남녀 단체전 결승에서는 중국의 벽을 넘지 못해 은메달 2개에 만족해야 했다. 하창덕(동양시멘트)-차형우(광주시청)-최병철(화성시청)-이천웅(상무)으로 구성된 남자 플레티엄은 중국과 치열한 접전 끝에 29-34로 패했다. 김금화(익산시청)-김혜림-이신미(이상 경북체육회)-장현경(전남도청)으로 이뤄진 여자 사브르 단체도 중국에 38-45로 져 준우승에 머물렀다. 복싱 기대주 신명훈(상무)은 64kg급 결승에서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태국의 마누스 분준놈에게 11-22로 져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요트 레이저급의 김호곤과 승마 장애물 비월 개인전에 출전한 주정현(삼성전자승마단)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그러나 남자 축구와 여자 농구는 각각 4강과 8강에 탈락했다. 필 베퍼백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알-가라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 준결승에서 전반 24분 사메르 무즈벨에게 통탄의 결승골을 내주고 0-1로 패해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남자 농구는 중국과의 8강전에서 하승진(16점·16리바운드)이 골밑에서 분전했지만 외곽 슈터들의 부진속에 52-68로 무너지고 말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재명이 13일 카타르 도하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6 도하아시안게임 육상 남자 창던지기 결승에서 혼신의 힘을 담아 창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 육상 '참패'

### 금 1·은 1·동 3...28년만에 최악



한국 육상이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금 1, 은 1, 동메달 3개의 성적표로 모든 경기 일정을 마쳤다. '1번 기종 종목' 육상이 약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동안 아시아권에서는 그나마 맹목이 유지를해왔던 전통마저도 위태롭게 하는 성적이다. 한국은 육상이 시작된 지난 7월 첫 종목인 남자 20km 경보에서 김현섭(삼성전자)이 '은빛 워킹'으로 산뜻한 출발을 했다. 그러나 8일 트랙·필드 종목이 열전에 들어가자 금새 무기력증에 빠져들었다. 여자 100m 허들 이연경과 남자 10종경기 김건우가 동메달 한 개씩을 건져올리며 힘겨운 메달 레이스를 벌였다. 그러나 마지막 날인 12일 '투척의 희망' 박재명(태백시청)이 '금빛 창'을 던져 체면을 세웠다. 1978년 방콕대회에서 은 1, 동메달 1개에 그쳤지만 1982년 뉴델리대회 금 3개를 시작으로 1986년 서울대회 금 7개, 1990년 베이징대회 금 2개, 1994년 히로시마대회 금 3개, 1998년 방콕대회 금 4개, 2002년 부산대회 금 3개로 선전했다. 이번이 28년만에 가장 나쁜 성적표다. /연합뉴스

### ■ 오늘의 주요 경기

- ▲농구 △여자 3~4위전 한국-일본(15일 01시)
- ▲카누 △K-1 500m 등 결승(20시)
- ▲사이클 △남자 50km메디슨 등(20시)
- ▲승마 △지구력 경기 개인·단체전(12시)
- ▲축구 △남자 3~4위전 한국-이란(23시30분)
- ▲펜싱 △남자 에페, 여자 플레뢰 단체 결승(15일 0시)
- ▲핸드볼 △남자 3~4위전 한국-이란(22시)
- ▲하키 △남자 결승 한국-중국(23시30분)
- ▲소프트볼 △결승(20시)
- ▲스쿼시 △남녀 결승(15일 0시)
- ▲다이빙 △10m 플랫폼 결승(15일 0시)
- ▲수구 △결승(15일 0시30분)
- ▲테니스 △남녀 단식 결승(19시)
- ▲배구 △남자 결승(15일 02시)
- ▲레슬링 △남자 자유형 55, 66, 84, 120kg급(15시)
- ▲유수 △스쿼트 전능 등(15시)